

##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FACT 작가 레지던시 교환 프로그램 크리스 쉐ن 《루메(자동) Lume(Auto)》 전 개최		
문의	- 전시문의 : 김선영(t. 031-201-8552), 이세정(t. 031-201-8597) - 취재문의 : 강연섭(t. 031-201-8559, m. 010-2906-1746)		
자료	웹하드 ghard.ggcf.or.kr ID njpac PW 1234 [보도자료]→[2018]→[루메(자동)]		
배포	2018. 1. 30.	쪽수	총 6매

# ‘크리스 쉐ن’ 《루메(자동)》

“2017-2018 백남준아트센터-FACT 작가 레지던시 교환 프로그램  
 참여 작가 ‘크리스 쉐ن’ 전시 개최”



- ▶ 백남준아트센터-FACT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맞아 ‘창조적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작가 레지던시 교환 프로그램 결과전시 《루메(자동)》전 개최
- ▶ 작가 크리스 쉐ن(Chris Shen), 기술과 예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장치나 도구들의 특징을 연구하고 자신만의 예술적 방법론을 실험
- ▶ 백남준아트센터 전시 《루메(자동)》에서는 센서등을 주재료로, 근접한 센서에 의한 빛의 연쇄 반응을 이용해 오브제들이 끝없이 소통하는 작업을 선보여
- ▶ 오는 1월 30일(화), 백남준아트센터 1층 메자닌에서 오프닝과 함께 오픈 스튜디오 진행

## ■ 전시개요

- 전 시 명 : 《루메(자동) *Lume (Auto)*》
- 전시기간 : 2018년 1월 30일 - 2018년 3월 25일
- 오픈닝 : **2018년 1월 30일 (화) 오후 4시**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메자닌
- 주최주관 : 백남준아트센터, FACT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국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 본 프로그램은 한·영 문화예술 공동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한·영 상호 교류의 해 :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양국 간의 예술분야 국제협력 고양을 위해 영국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영국문화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 하에 한·영 문화예술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중 백남준아트센터와 FACT는 레지던시 교환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전시 소개

백남준아트센터(서진석 관장)는 2017-18 한·영 상호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창조적 미래'를 주제로 영국의 미디어 아트센터 FACT(Foundation for Art and Creative, 마이크 스텝스 디렉터)와 젊은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영국 작가 선정을 위해, 2017년 10월 심사위원회를 거쳐 크리스 쉐(Chris Shen, 영국)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작가는 2017년 1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백남준아트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아트센터 1층 메자닌에서 크리스 쉐의 전시 《루메(자동)》을 2018년 1월 30일부터 3월 25일까지 개최하며, 전시 오픈닝 당일에는 오픈 스튜디오를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크리스 쉐는 일상의 기술과 예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장치나 도구들의 특징을 연구하고 자신만의 예술적 방법론을 실험하며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백남준아트센터 전시 《루메(자동)》에서는 센서등을 주재료로, 근접한 센서에 의한 빛의 연쇄 반응을 이용해 오브제들이 끝없이 소통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빛의 전파인 동시에 이원적 빛의 물질이다'라고 작가는 말한다. 작가는 복잡한 구조의 장치나 도구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도출해내고 관람객이 작품을 통해 저마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던진다.

“끊임없이 존재와 무(無) 사이를 오가며 진동하고 공간 속에서 무리를 짓는 소수의 기본 입자들은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은하들의 광대한 역사를 말해주는 우주 알파벳의 문자들처럼 무한한 결합을 한다.”

- 카를로 로벨리, *Seven Brief Lessons on Physics*

## ■ 작가 소개

크리스 쉐(1988, 영국)은 런던 커뮤니케이션 대학교(LCC)에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런던과 홍콩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영국), 런던 뮤지엄(영국), 아이빔(미국) 등의 그룹전에 참여했고, 비디오타지(홍콩), 보얼예술특구(대만), 국립현대미술관 창동(한국)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 작가 약력

### 전시

- |      |   |
|------|---|
| 2018 | Lume(Auto), 백남준아트센터, 대한민국   |
| 2017 | Rastrum, MoCA 타이베이, 대만  |
| 2016 | Lume (Auto), 런던박물관, 영국<br>Luma,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대한민국<br>Look at Yourself,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대한민국                                   |
| 2015 | Lume (Auto), 보얼예술특구, 대만<br>HKG Transit, 비디오타지, 홍콩<br>Spectra.009, 원톤민, 홍콩   |
| 2014 | INFRA, 아테네 비디오아트페스티벌, 그리스<br>Spectra.002-005, 프로테인, 영국<br>In The Wild, #dotdotdot, BL_NK, 영국<br>Spectra.001, 중국현대예술센터, 영국 |
| 2013 | Rastrum,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 영국<br>INFRA, video_dumbo, Eyebeam Art + Technology Centre USA<br>INFRA (Solo Show), 퓨처 에브리딩, 영국 |

- 2011 INFRA (Solo Show), 18 휴렛 스트리트 갤러리, 영국  
Look at Yourself, BBC 뮤직 비디오 페스티벌, 영국  
Stampede Me, Open, 뉴갤러리, 영국  
Luma, 런던 커뮤니케이션 대학교(LCC), 영국  
2008 Chroma-Lapse, 스톡포트 컬리지, 영국

## 레지던시

- 2017-2018 백남준아트센터, 대한민국  
2016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대한민국  
2015 보얼예술특구, 대만  
비디오타지, FUSE 레지던시, 홍콩

## ■ 기관 소개

### ○ 백남준아트센터(한국)

2001년 백남준과 경기도는 아트센터 건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백남준은 생전에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트센터를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 명명했다. 2008년 10월에 개관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작가가 바라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기 위해 백남준의 사상과 예술활동에 대한 창조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연구를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실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주소: 1706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 홈페이지 : <http://njp.ggcf.kr>

### ○ FACT(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영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트센터 FACT(Foundation for Art and Creative Technology)는 인간, 예술, 기술의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FACT는 전시, 연구뿐만 아니라 혁신적이면서도 커뮤니티가 이끄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조적인 기술의 힘을 고안하고자 한다. 건축상을 받은 바 있는 FACT의 건물은 3개의 전시공간, 카페, 바 그리고 4개의 시네마로 구성되었다. 1988년 설립 이후 (이전에는 Moviola로 칭함), 피넬로티 리스트, 백남준, 크지슈토프 보디치고, 료이치 쿠로카와,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그리고 아이작 줄리앙을 포함한 다양한 작가들의 350점의 뉴미디어와 디지털 예술작품을 선보여 왔다.

- 주소: FACT, 88 Wood Street, Liverpool, UK, L1 4DQ
- 홈페이지 : [www.fact.co.uk](http://www.fact.co.uk)

## ■ 작품 및 전시 전경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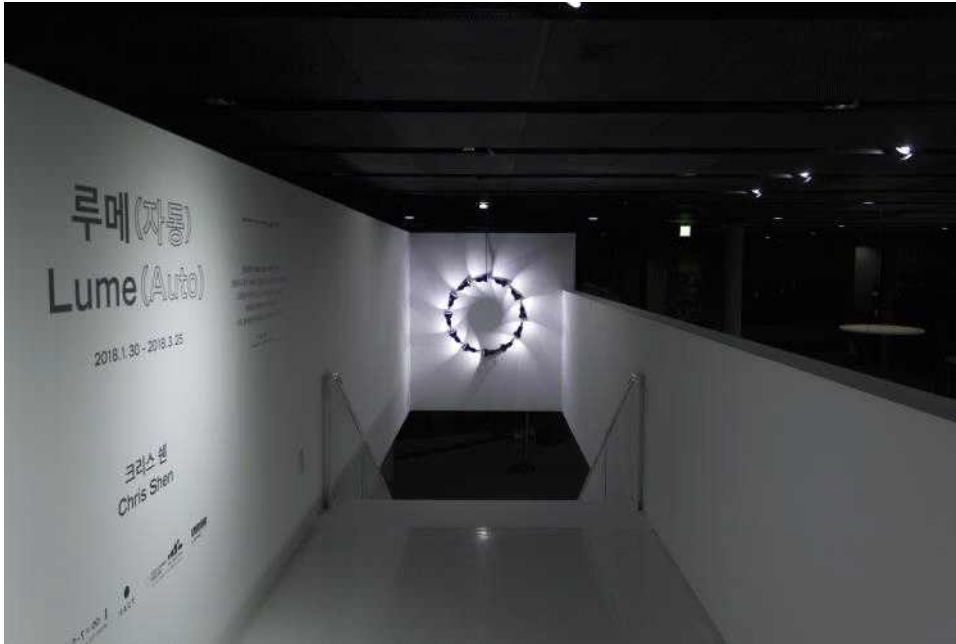
크리스 쉐, «루메(자동)», 백남준아트센터 1층 메자닌 전시 전경

Chris Shen, Exhibition view of *Lume (Auto)* at Nam June Paik Art Center 1F, Mezzanine

### \* 작품 캡션:

크리스 쉐, <루메 필드(자동)<sub>120</sub>>, 2018, 120개의 센서등, 전선

Chris Shen, *Lume Field (Auto)<sub>120</sub>*, 2018, 120 automatic security lights, electrical cable



크리스 셴, 《루메(자동)》, 백남준아트센터 1층 메자닌 전시 전경  
Chris Shen, Exhibition view of *Lume (Auto)* at Nam June Paik Art Center 1F, Mezzanine

**\* 작품 캡션:**

크리스 셴, <루메(자동) ∅ 109>, 2018, 12개의 센서등, 철, 전선

Chris Shen, *Lume (Auto)* ∅ 109, 2018, 12 automatic security lights, steel, electrical cable